

2008년 03월 16일 (일) 07:05 [연합뉴스](#)

## 기금 1천억 경남문화재단 올 하반기 출범

(창원=연합뉴스) 정학구 기자 =경남도는 지역의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1천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올 하반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다.

16일 도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경남문화재단(가칭)에 우선 103억원을 출연해 하반기에 출범시키고 2025년까지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으며 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.

이 재단은 기금 확보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단계별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로 하고 설립 초기에는 문화예술 진흥과 대외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 및 촉진 기능을 담당하며 장기적으로는 독립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등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다.

재단 조직은 설립 초기에는 태스크포스 형태로 최소화해 운영하고 활동이 본 궤도에 오르면 관리부와 홍보부, 정책연구부 등 부서를 두고 10명 이내의 조직을 구성.운영한다는 계획이다.

도는 이를 위해 재단설립에 따른 조례 제정, 발기인 총회, 이사회 구성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.

이와 관련해 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난 14일 경남무역회관에서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장과 시.군 예총회장, 문화원장, 담당 과장, 도의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남문화재단 설립.운영방향과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및 필요성, 타 시.도 문화재단 운영사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.

박갑도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"경남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타 시.도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운영시스템이 부족하고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"며 "지역정체성 확립과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예부흥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,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b940512@yna.co.kr

(끝)

주소창에 '속보'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

<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+Nate/magic@/show/ez-i >

< 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 >